

글로벌 보건산업 동향

Global Smart
Healthcare
Industry Trend

FOCUS

의료 서비스에 대한
가격 비교 쇼핑 방안

CONTENTS

포커스

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비교 쇼핑 방안 2

스마트 헬스케어

'25년 의료 인공지능 시장이 361억 달러에 이를 전망 5

중국 텐센트, AI 기술에 기반해 의료 분야로 진출 확대 5

호주 기업 '스웸 에어로', 드론으로 남태평양 섬에 백신 전달 6

세계 최초 AI 기반 휴대용 심장 모니터 '하트센스' 출시 임박 6

4대 보건산업

싱가포르,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의료 관광객 감소 7

일본, '19년 1월부터 산모에 대한 추가 비용 시스템을 유예 7

신약 개발비 증가로 제약사들의 R&D 수익이 1.9%에 불과 8

미국 반낙태주의 단체들, 국립보건원 수장의 사퇴 요구 8

포커스

01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비교 쇼핑 방안

[Texas Conservative Coalition Research Institute, 2018.12.05.]

인터넷 파워의 증대로 거의 모든 제품을 비교 쇼핑 후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유독 의료 서비스만큼은 비교 쇼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. 동 보고서는 그 이유를 분석하고, 더 나아가 가격 비교 쇼핑을 증진시켜 환자들이 고품질의 가격 경쟁력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방안을 제시

▣ '17년 소매시스템연구(Retail Systems Research)가 '소매업체의 가격 전략(retailers' pricing strategies)'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

- 그 결과, 소매업체들이 직면하는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△가격 투명성 증대(가격 비교 쇼핑의 영향) △소비자의 가격 민감성 증가 △경쟁업체들로부터의 가격 압박 등이 거론
- 즉,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같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
- 이처럼 비교 쇼핑의 개념이 미국 컨슈머리즘(consumerism)의 거의 모든 면으로 전이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의료 시장으로는 미확산
- 따라서 이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가격 비교 쇼핑을 하지 않는 이유 및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

[의료비 지출]

▣ 메디케어·메디케이드 서비스(CMS)에 따르면, '16년 미국인들의 의료 지출은 3조3천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'26년에는 5조7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

- 평균적 미국인들은 연간 총 소득 중 교육·의료 부문 지출의 합계액보다 의료비에 더 많이 지출
- 이는 가정용 제품이나 의복은 인터넷을 통해 가격 비교 쇼핑을 하면서도, X-레이 및 MRI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 비교 쇼핑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

[의료 서비스 비교 쇼핑]

- ▣ 소비자들은 의료 부문에서도 가격 비교 쇼핑을 할 의사가 있지만, 현 시스템은 가격 비교를 촉진하도록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한계

- 미국 회계재단(Foundation for Government Accountability)이 '15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△응답자의 88%가 의료 외 기타 영역에서는 가격 비교 쇼핑을 한다고 답변 △그 중 절반 이상이 예상 치료비 추산 및 의료비 청구서 판독에 어려움을 호소
- 따라서 의료 부문에서도 가격 비교 쇼핑이 도입된다면, 가격 비교 정보의 판독 및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
- 궁극적으로, 의료 컨슈머리즘은 세대 전환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젊은 층일수록 가격 투명성 툴을 더욱 활용할 것으로 예상

▣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비교 쇼핑은 최저가를 찾아내는 것 이상으로 유의

- '커먼웰스 펀드(Commonwealth Fund)'에 의하면, 환자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의료 옵션을 검색하기 시작하면 치료의 품질 및 안전성도 검토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
- '헬스케어 블루북(Healthcare Blue Book)'의 CEO 제프리 라이스(Jeffrey Rice)에 따르면, 가격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 환자들은 거의 품질에 대해서도 질문하지 않는다고 언급
- 최상의 의료 시스템은 고품질의 치료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, 소비자들에게 의료 품질 및 가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관여시키는 것이 보건 시스템 변혁에 있어 극히 중요

[가격 투명성 이니셔티브]

▣ 의료 영역에 가격 비교 쇼핑의 적용이 상당히 더딘 편이지만, 지난 10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가격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

- 대표적으로 '헬스케어 블루북'을 들 수 있는데, 웹사이트를 개방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'공정한 가격'을 제시
- 보험업체들도 가격 비교 툴을 개발해 가입자들이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환자본인부담액(out of pocket expenses)을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

▣ 한편 플로리다 주를 비롯해 주 정부 또한 가격 투명성 법안을 도입

- 구체적으로 '16-'17년 두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70여 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며, 그 중 △'16년에 15개 △'17년에 21개 법안이 통과
- 그 중, 플로리다 주의 '환자 권리 법안(patient bill of rights)'은 치료비의 투명성 구축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치료 예상 비용 등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
- 텍사스 주도 가격 투명성 보장을 위해 '07년 80회차 법안 심의에서 'SB 1731(Duncan, SP: Isett)' 법안을 통과시킴

- 이 법안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‘텍사스 보험국(Texas Department of Insurance, TDI)’으로 하여금 특정 의료 서비스의 평균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편찬을 요구

▣ 한편 연방 정부도 △‘마이헬스E데이터(MyHealthEData)’ △‘서류가 아닌 환자 우선(Patients Over Paperwork)’ 등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투명성을 증진

- 그 외, CMS는 △8월에 병원이 표준 비용 청구서 목록의 온라인 발행 및 연례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신규 법규를 최종 승인 △11월에는 제약사들이 처방약의 도매가를 노출하도록 하는 법규 초안을 발표

[Right to Shop]

▣ 정책 입안자들 및 이해관계자들은 가격 비교가 가능해질 경우 소비자들이 정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

- 의료 서비스의 경우 가격 편차가 큰 편으로, 예를 들어 동일한 장비로 X-레이를 촬영해도 그 장소가 병원 혹은 이동수술센터(ASC)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
- 그럼에도 가격 쇼핑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검사 및 시술의 실제 가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 때문이며, 현재로서는 보험 가입자의 환자부담액 정도만 노출될 뿐 총 비용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상황

▣ 이에 대한 해법으로 ‘라이트 투 샵(Right to Shop)’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에게 환자 부담액뿐만 아니라 전체 치료비에 대해 정보를 제공

- 개념을 정리하자면, 의료 공급자는 MRI 등 의료 서비스를 처방→환자는 무료 전화 및 보험사 등이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방문해 다양한 옵션과 가격을 검색→병원 최종 선택 후 그곳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
- 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결국 투명하게 제시된 의료비용을 신속·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, ‘소비자들의 정보 접근 역량’에 달려 있음
-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직원 47,000명 규모의 어느 민간 기업은 9개월 동안 170만 달러를 절약하는 등, 긍정적 변화를 목격
- 한편, 뉴햄프셔 주에서 인센티브 기반의 가격 비교 쇼핑 프로그램을 3년 간 운영한 결과, △서비스 및 수술을 비교 쇼핑 후 선택할 경우 일 회당 평균 670달러를 절감 △지금까지 총 1,200여 만 달러를 절약 △이를 통해 인센티브로 100만 달러를 지불

스마트 헬스케어

01 '25년 의료 인공지능 시장이 361억 달러에 이를 전망

[BigdataMadesimple, 2018. 12. 18.]

마켓앤마켓츠(MarketsandMarkets™)에 따르면, '18년 의료 인공지능(AI) 시장의 규모는 약 21억 달러로 추산

- 향후 연평균 50.2% 증가해 '25년에는 36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
- '18년 의료 AI 시장에서 '머신 러닝 기술'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으며, 머신 러닝 중에서도 딥러닝(deep Learning)이 의료 AI 시장을 견인
-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'프로세서'가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으며, 고성능 컴퓨팅 역량을 가진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한 니즈 증대가 의료 AI 하드웨어 장비 부문의 성장을 촉진
- 상황 인지 컴퓨팅 부문 역시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, 성장 요인으로는 보다 증대된 프로세싱 파워, 혁신적 센싱 역량, 향상된 연결성 등 다수
-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이 의료 AI 시장의 성장을 선도했으며,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아태 지역은 IT 인프라 증진 및 정부의 호의적 기준 등에 힘입어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

02 중국 텐센트, AI 기술에 기반해 의료 분야로 진출 확대

[China Daily, 2018. 12. 18.]

인터넷 기업 텐센트는 자사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료 분야로 진입 중

- 당국과의 보건 협정 하에, 상하이·저장(浙江)·장쑤(江蘇)·안후이(安徽省) 지역 환자들의 온라인 진료 예약 및 건강검진 프로세스를 지원
- 즉, 영상 진료 및 진단→전자 처방전 발송→온라인 결제→의약품 배송 등 전 과정을 전화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
- 한편, 텐센트는 고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암을 진단하는 개방형 의료 AI 진단 엔진 '미잉(Miying)'도 개발

스마트 헬스케어

03 호주 기업 '스웁 에어로', 드론으로 남태평양 섬에 백신 전달

[CNBC, 2018.12.19.]

▶ 호주 테크 기업 '스웁 에어로(Swoop Aero)'는 남태평양 바누아투 (Vanuatu) 섬의 1개월 신생아를 위해 드론으로 백신을 전달

- 이는 바누아투 정부가 상용 드론 업체와의 계약 하에 백신을 오지로 배송한 첫 사례로, 정부는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드론 배송을 통합하고 드론에 기반해 기타 의약품 공급을 더욱 확대할 방법을 모색 중
- 백신은 정확한 온도 유지가 필수이기 때문에 배송이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
- 특히 무덤고 도로 인프라가 미약한 지역은 배송이 더욱 힘들며, 그로 인해 현재 바누아투 어린이 5명 중 1명은 필수 백신 접종을 놓침
- 스웁 에어로의 백신 배송은 민간 기업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세계 아동의 백신 접종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

▶ 드론 배송과 관련해, 가나 정부는 혈액 및 기타 품목을 드론으로 배송하기 위해 미국 기업 'ZipLine(Zipline)'과 계약을 체결

- 그 외, △말라위에서는 병원 간 드론으로 혈액 샘플을 배송함으로써 유아들의 HIV 진단 속도를 제고 △르완다도 드론을 채택해 의약품 및 혈액을 시골 지역 의료진에게 전달 △파푸아뉴기니에서는 드론으로 결핵 의심환자들의 샘플을 병원으로 이송

04 세계 최초 AI 기반 휴대용 심장 모니터 '하트센스' 출시 임박

[Healthline, 2018.12.19.]

▶ '캠브리지 하트웨어(Cambridge Heartwear)'는 '19년 1분기에 세계 최초 AI 기반 휴대용 심장 모니터 '하트센스(Heartsense)'를 출시할 예정

- 가슴에 착용하는 밴드 모양의 하트센스는 △심전도 측정 및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다양한 센서가 탑재 △데이터 수집 즉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전송 △AI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분석해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송 △사용자는 이를 의사들과 공유
- 특히 여성의 인체 구조를 고려해 설계함으로써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

4대 보건산업

01 싱가포르,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의료 관광객 감소

[Singapore Business Review, 2018.12.17.]

▣ 의료 관광 허브 싱가포르, 의료비 상승과 싱가포르 달러 강세로 의료 관광객이 감소하는 추세

- 반면, 이웃나라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의료 공급자들은 △가격 경쟁력이 높은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싱가포르의 의료 관광 시장 점유율을 서서히 잠식 △비용을 낮춤과 동시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투자

▣ 보험업체 '아온(Aon)'의 보고서에 따르면, '19년 싱가포르의 의료 인플레이션은 10%로 글로벌 평균 8%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

- 의료비 상승으로 보험업체들은 의료비를 100% 보장하는 '종합의료보험'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음
- 한편, '래플즈 메디컬(Raffles Medical)', 'IHH 헬스케어(IHH Healthcare)' 등 민간 병원들은 현재 '설비투자액 집약적(capex-intensive) 확장 단계'에 있기 때문에, 그것이 '19년 수익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

02 일본, '19년 1월부터 산모에 대한 추가 비용 시스템을 유예

[The Mainichi, 2018.12.19.]

▣ 일본 보건부는 '19년 1월 1일부로 임신부에 대한 추가 비용 청구를 유예

- 추가 비용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산모와 태아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할 목적으로 지난 4월에 도입
- 임신부에게 청구되는 추가 비용은 △초진 시 750엔(7달러), 재진 시 380엔
-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의료비 70% 보장을 감안하면 환자의 실제 부담액은 초진 시 230엔, 매 회 재진 시 110엔
- 이를 두고 '임산부 세금'이라는 비난이 고조되었으며, 따라서 보건부는 '20년 반기 의료지불시스템 검토 시 임신부 추가 비용 폐지를 고려 중

4대 보건산업

03 신약 개발비 증가로 제약사들의 R&D 수익이 1.9%에 불과

[Reuters, 2018.12.19.]

▣ 딜로이트(Deloitte)의 '제약사의 R&D 경제성에 대한 연례 보고서'에 따르면, 신약 개발비용이 '10년 이후 거의 두 배 상승

- 신약이 글로벌 시장에 꾸준히 출시되고 있지만, 화이저(Pfizer)·로슈(Roche)·노바티스(Novartis) 등 글로벌 12개 제약사들의 R&D 비용 대비 평균 수익률은 △전년 3.7%에서 '18년 1.9%로 감소 △'10년 10.1%에 대비하면 8.2%p 감소
- 신약 출시에 드는 평균 비용이 '10년 11억9천만 달러에서 '18년 21억8천만 달러로 약 2배 상승
- '18년 신약 최대 판매 예상치도 평균 4억8백만 달러로, '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는데, 그 이유는 환자 층이 얇은 틈새 집단에 초점을 두고 신약을 개발하는 경향 때문
- 성공적 제품이 다수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개발 비용 및 규제 증가로 제약사들은 R&D 투자금 회수에 난항

04 미국 반낙태주의 단체들, 국립보건원 수장의 사퇴 요구

[The Hill, 2018.12.18.]

▣ 반낙태주의 단체, '생명을 위한 행진(March for Life)' 등은 국립보건원(NHI) 수장 프랜시스 콜린스(Francis Collins)의 사퇴를 요구

- 콜린스의 배아 연구 지지가 △현 정부의 생명 친화적 정책과 배치 △세금이 낙태와 연결되는 것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의 기조와도 맞지 않기 때문

* 컨센서스에 따르면, △미국인 10명 중 8명은 낙태에 대해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△10명 중 6명은 낙태 허용 시 오직 임시 초 3개월 내로 제한할 것을 주장 △미국인들의 3분의2는 자신들의 세금이 낙태와 관련해 쓰이는 것을 반대

- 이에 대해 콜린스는 배아 연구가 윤리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주장
- 현재 NHI는 배아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1억여 달러의 연방 기금 지원을 심사 중이며, 수개월 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